법의 단비로 중생 욕망 씻어주리라

불화 속의 명장면 (16)

파주 보광사 '감로탱' (하)

그림7 : 우란분재의 시작을 알리는 범패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감로(甘露)가 운반되어 옵니다. 우란분재의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 거대한 발우에 동산처럼 가득 쌓아올려진 흰 쌀밥, 성반(盛飯)이 등장합니다(그림4). 성반이 제단에 올려지면 시식단(施食壇) 한 상차림이 완성됩니다. 누구보다도 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귀는 좋아라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그림5 · 6). 범패가 들썩들썩, 대연주회 직전의 설레임입니다.(그림7)

사는 데 있어 먹는 것 만큼 시급한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보다는 '나는 배고프다 고로 존재한다'가 보다 더 시급한 문제. 바로 '밥'이 주제인 불화가 감로탱입니다. 작품 속의 성반(盛飯)은 그 위로 포진한 일곱 분 부처님(칠여래)의 막강한 원력으로,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최상 최고의 맛, 바로 감로(甘露, 하늘에서 내리는 단 이슬)로 변하여 중생들의 굶주림을 채워줍니다.

그림6 : 아귀들

감로탱의 소의경전으로는 여러 경전들이 열거되지만 그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읽혔던 것은 <목련경>과 <우란분경>. 두 경전 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아들 목련이 음력 칠월 보름날, 하안거를 마친 승려를 위해 갖가지 음식과 과일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그 생전의 업보로부터 구한다라는 기본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목련경은 우란분경을 원본으로 하는 위경(僞經)이라고도 합니다.

'우란분(盂蘭盆)'의 뜻에 대해서는 분분한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해석을 찾아본 바 이렇습니다. "산스크리트어 'ullambana'가 음차되어 와전된 말로 그 뜻은 '도현(倒懸)'이다. 인도의 풍속에 따르면 수행승의 자자일(自恣日, 안거가 끝나는 날 승려들이 마음껏 잘잘못을 말하는 날)에 성대하게 공양을 마련해 보시하는데, 이 공양을 통해 죽은 영혼을 도현(倒懸)의 고(苦)에서 구제한다. '도현의 고'란 즉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말한다. 선조가 죄업이 깊어 가계를 이을 자손이 끊겨, 후대에 그 고혼을 맞아 구원을 청해줄 이가 없으면 즉 아귀도에서 도현의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불가에서는 제의를 마련해 삼보(三寶)의 공덕을 불러일으킨다.<현응음의(玄應音義)제13>" '분(盆)'을 이러한 공양을 담는 용기라고도 하나, '분'은 단순한 음역에 불과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우란은 'ullam'의 음차에 해당하니, 당연 분은 'bana'의 음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이 그 뜻대로 기명(器名)을 말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백미(百味)의 음식을 우란분중(盂蘭盆中)에 담아<우란분경>", 또는 "칠보의 분발(盆鉢)에 갖추어 부처님 및 승려에게 공양하고<법원주림제16인용 대분정토경(大盆淨土經)>"라고 쓰여있어 그릇의 의미가 다분히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란분은 '도현'의 뜻이지만, 번역되어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는 와중, 이렇게 음역과 의역 모두를 취하는 양분적인 단어로 정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이라는 단어는 <목련경>[만력12년(1584, 선조17) 승가산 흥복사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보를 믿지 아니하고 인색하고 욕심내고 나쁜 업을 많이 쌓은 목련의 어머니는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목련이 찾아 헤매며 들여다본 여느 지옥과는 다르게, 아예 접근 불능한 커다란 아비지옥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은 만 길, 검은 벽은 만 겹, 그 위에 철망으로 덮였고, 그 위엔 네 마리의 구리로 된 개가 있어 맹렬한 불길을 토해 허공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답니다.

목련이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자, 지옥주인은 '이 문은 생긴 후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 문'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어디로 들어오는가'라고 물으니, '이곳은 불효하고 오역죄를 범하고 삼보를 믿지않는 중생이

성반은 일곱 부처님 원력이 담긴 최상 최고의 맛
우란분재는 구천 떠도는 영혼들을 위한 상차림
음식 보고 즐거워하는 아귀들 익살스럽게 표현

목숨이 다하게 되면 업풍이 불어 거꾸로 매달려 오는 곳(倒懸)이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도현이라는 단어는 워낙 죄가 무거운 자들이 받는 극한 형벌(아비지옥)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구제하기 힘든 지옥에 빠진 영혼을 구제하려니, 스님들의 기가 가장 맑고 원력이 가장 강한 날, 그러니까 하안거가 끝나는 날(7월15일) 스님들의 막강한 결집을 빌어 이들을 구제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림5 : 감로를 고대하던 아귀

그나마 목련의 어머니는, 어머니를 구출하겠다는 목련의 대단한 효심이 있었기에 구제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못한 영혼들은 아비지옥에 남아 이를 매우 부러워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곤궁한 처지의 대명사로 예로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이 꼽혔습니다. 즉 홀아비 · 과부 · 고아 · 무자식노인은, 고대로부터 국가의 경사 때나 또는 재난 때 가장 먼저 구휼의 대상이 되는 '복지정책 대상 1호'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지극히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고통은 도현, 이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에 비유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란분재는, 물론 현세의 부모와 과거 7대의 부모를 위한 제사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후손에 없어 죽은 뒤에도 제사를 받을 수 없어 구천을 떠도는 고독한 영혼들을 위한 한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목련의 어머니 구출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아주 특별한 가호와 신통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아비지옥에서 소흑암지옥으로, 이 흑암지옥에서 다시 아귀도로, 아귀도에서 암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월 보름날 우란분재를 지내고야 정토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림4 : 공양되는 감로(성반)

감로탱의 시식단 바로 밑에 가장 크게 묘사되는 아귀는 바로 굶주림과 허기의 표상입니다. 보통 아귀 도상은 심하게 부풀어오른 둥근 포대같은 배와 매우 가는 목구멍, 입에서는 불꽃을 뿜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만, 본 보광사본 작품의 아귀는 건장한 장수와 같은 몸에 표정도 아주 밝습니다. 손은 합장을 했다기보다 등장하기 시작한 성반을 보고서 좋아라 입을 벌리고 손뼉을 치는 듯합니다. 고통스런 표정과 음산한 분위기의 여타 감로탱의 아귀와는 달리 유머스럽고 마냥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귀의 몸통 구조를 보면 그의 운명이 짐작되시겠지요. 위장이 비대하여 게걸스런 식탐이 엄청나지만 불행히도 목구멍이 바늘만하여 음식을 삼킬 수 없는 모순된 운명. 또 아귀가 음식을 집어 삼키려하면 그것은 매번 불덩이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 바로 목련존자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아귀의 모습입니다. 이는 먹을수록 배고픈 마실수록 목마른, 바로 우리의 '욕망의 구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로(성반)가 등장하였으니, 부처님과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제 곧 중생의 불덩이를 식힐 수 있는 감로의 법우(法雨)가 흡뿌리겠지요.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세계평화 3방안 제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에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천 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험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에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끼리의 충돌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 종교가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척결을 양측은 수긍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핵무기 확산방지 문제인데 세계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갖고자 하는 나라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 번영을 위한 일이니 합의하여 '핵 평화헌장'을 만들어 세계가 평화용으로만 공동사용, 공동관리토록 UN기구를 통해 실행하기를 제의합니다. 이 방법이 6자회담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셋째로는, 한국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불리함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세계평화 중심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히고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층짜리 건물도 좋지만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계몽 강연** 기독교(천주교,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유일신 충돌만 분쟁원인이 아니라 성경 교리에도 타종교에의 침략적 분쟁요소가 많은 것도 시정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인은 항상 <칼>을 차는 것이 침략자임을 보임이요, 기독교 역시 교주가 신자에게 <검>을 주어 싸우게 하러 왔다(마태복음 10장34절)는말씀 자체가 분쟁원인이니 종교간 화합 세계평화가 있을 까닭이 없으므로 이것까지 시정치 않으면 안되는 것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계몽강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계에서 이를 부인한다면 이 강연을 들으시고 토론하기를 청합니다. 더욱 예를 들자면 카톨릭 성전 마태오 10장34절에도 내가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왔다 하고, 또 35절에는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라고도 하였으니 맞선다 함은 부모가 타종교를 믿을 때 그 칼을 들이대며 자기 교를 믿으라고 맞서 믿지 않거든 그 칼로 부모를 해치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되니 이는 부모에 불효막측한 짓을 신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고,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교리들이 결국 전통 부모조상에 대한 효도사상 등 미풍양속을 파괴해 왔다 하겠고, 또 자기교를 펴기위해 칼을 쓰라고 할 때에는 필요하면 총이든 대포든 미사일이든 어떤 무기라도 사용하여 이 세상을 기독교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이 되어지고, 심지어 예수는 아마겟돈이라는 무서운 세계전쟁 또는 우주전쟁까지 일을키게 되어 있다니 예수는 성경 해설에서 '평화의 왕' 이라지만 오히려 전쟁왕 그것도 우주 전쟁(광?)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런지? 그렇다면 완전한 평화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연을 받아들이신다면 외람되오나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막강
기독교계에 비판강연과
토론을 신청하는 法天스님!
자아! 기독교계가 어찌 나올까?
점잖게 응해올 것이냐?
꼬리를 빼 달아날 것이냐?
흥미진진!! 폭류도도!! 호호탕탕!!
세계 최초의 쟁론
기대하시라 천하가 주시하리!!

〈저 실론의 '파아나두라 대논쟁'(기독교와 불교)은 세계평화문제가 아님〉
세계평화 정토회 일동 백

● **宇宙的 新 淨土法門**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설법
〈상기 강연이나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 드림〉
日本國のお寺法會でもご要請 あれば參上お話(說法)して上げます.

● **본회가입 안내** :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영어숙달자 환영) 집회 추후 통지.
● **목적** : 세계평화 센터를 건립, 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세계적 활동을 하려 함.
이 일을 국내외 유지분들께서 주인이 되시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찬조 및 광고성금 뜻이 있으신 분> 농협 811013-51-044560 사명정사(세계평화 정토회)

세계평화정토회 대표 법천 학산 합장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2-67 402호 • 접수 : ☎ 02)3273-0841 / 팩스 02)3273-0840 • 직통 011-9230-2192